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2. 1. 5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철도운행 안전과	담 당 자	·과장 조성균, 사무관 백정호 ·☎ (044) 201-4611, 4612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

경부고속선 대전~김천구미역 간 KTX 열차 탈선(1보)

- 1.5일(수) 11:58분경 서울발 부산행 KTX-산천 제23호 열차가 대전~김천구미역 간 영동터널 인근에서 운행 중 4호차가 탈선하였음
 - 열차 탈선으로 7명의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하여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6명은 귀가하였음
 -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전원 비상대기 열차를 투입하여 환승 완료하였음(14:02)
- 사고는 터널 내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와 부딪힌 이후 정지 과정에서 탈선 등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, 정확한 원인은 향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임
 -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 동안 경부고속선 열차 운행(KTX, SRT)은 일반선으로 우회 예정이며, 일부 열차는 운행을 중지할 계획임
- 국토교통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로 발령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을 반장으로 상황반을, 철도공사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·운영 중임
 -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 활동 등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(6명), 철도경찰(12명), 항공철도조사위원회(7명) 등이 현장 출동하였음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사고 복구 및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을 당부하면서,
 - “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오늘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사고 복구방안,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철도운영안전과 백정호 사무관(☎ 044-201-46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